

피양랭면집 명옥이

* 글: 원유순 * 그림: 최정인

* 출판사: 웅진주니어 * 정가: 9,500원

* 분량: 116쪽 * 대상: 초등 3학년

· 책 소개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힘찬이와 탈북민 출신 명옥이가 짝꿍이 되어 서로가 가진 아픔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이해하며 우정을 쌓아 가는 이야기를 그린 동화입니다. 힘찬이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피부가 거칠거칠해서 닭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피양랭면집> 딸인 명옥이는 아직 남한 생활이 낯설고 무섭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현실을 잘 견디어 내고 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음식을 가려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아토피 피부염의 고통을 짊어진 힘찬이와 탈북 과정에서 동생 명수의 죽음을 경험한 명옥이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고통과 맞서고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시다.

· 주요 독후활동

피양랭면집
명옥이

책 속으로


①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② 힘찬이와 명수
③ 명옥이의 학교생활
④ 배려하는 말하기

토론&논술

① 허락 없이 편지를 공개해도 될까?
② 명옥이와 친해지는 법

창의융합

탈북민과 함께해요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제목, 앞뒤 표지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책의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 |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
|-----|---|
| (예) | 앞표지 그림의 두 아이 중 한 사람이 명옥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 |
| (1) | |
| (2) | |

※ (2~3) 책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김명옥은 병어리래요, 병어리래요.”
한일리와 경석이는 약을 올렸습니다.
명옥이는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얼레리 팔레리, 병어리가 운다 울어.”
그런데 명옥이가 느닷없이 신발주머니로
한일리와 경석이를 냅다 갈겼습니다.
그러더니 와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옥이는 뺨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병어리 아니란 말이다, 알겠네?”

2. 윗글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명옥이의 말투와 책의 제목에 나오는 ‘피양랭면집’은 북한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명옥이는 어떤 인물일까요?
⇒

3.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명옥이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

교안개발: 허니에듀

- 2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인상 깊은 내용 정리하며 읽기

※ 『피양랭면집 명옥이』를 읽으면서 인상 깊은 내용을 찾아 정리해보세요.

| 페이지 | 인상 깊은 내용 |
|---------------|---|
| (예) 25~26쪽 | 말이 없던 명옥이가 아이들이 병어리라고 놀리자 병어리가 아니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린 장면 |
| | |
| | |
| | |
| | |
| | |
| | |
| | |

 **독서 후** 책 속으로 ①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 『피양랭면집 명옥이』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파악해보세요.

| 인물 | 말이나 행동 | 인물의 성격 |
|-----|--|--------|
| 명옥이 | ① “내 동생 명수도 두드러기 참 많이 났었는데……. 아무 거나 잘 먹었으면 좀 좋았겠네.” 그렇게 말하며 명옥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입니다. | |
| | ② 명옥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야, 너들 힘찬이 보고 닭살이라 하지 마라. 앞으로 닭살이라 놀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다.” | |
| 힘찬이 | ③ “야, 그거 이리 내놔.” 어디서 나타났는지 힘찬이가 번개처럼 명옥이의 공책을 낚아챈습니다. “어어?” 어안이 병병해진 한일이가 주춤거리는 사이 힘찬이가 냅다 앞서서 달렸습니다. “명옥아, 뛰어.” | |
| | ④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일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하지만 힘찬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떼를 쓰면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
| 명숙 | ⑤ 명숙이는 명옥이를 가만히 보더니 한숨을 포옥 쉬었습니다. “명옥아, 친구가 없어 외롭네?” 명숙이는 명옥이를 끌어당겨 꼭 안아 주었습니다. | |



독서 후 책 속으로 ② 힘찬이와 명수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힘찬이를 보면, 이상하게 죽은 동생 명수가 생각났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명옥이는 명수와 각별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위로 명식이 오빠, 명숙이 언니가 있었지만, 나 이 차가 제법 낯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 “두드러기?” 힘찬이는 두드러기라는 말을 몰라 명옥이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두드러기. 음식 잘못 먹으면 몸에 불긋불긋하게 돋지 않네?”

명옥이가 우툴두툴한 힘찬이 팔뚝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아니다,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힘찬이는 당황하여 얼른 팔뚝을 뒤로 감추며 얼버무렸습니다.

“내 동생 명수도 두드러기 참 많이 낳았는데……. 아무거나 잘 먹었으면 좀 좋았겠네.”

(다) “이건 다 아무 것도 아니야. 내가 정말 싫은 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는 거야.”
“뭐가 제일 먹고 싶은데?”

“나 사실은 고기 정말 좋아하거든. 돼지고기 삼겹살 구이를 이따 만한 상추에 싸서 먹는 거.”

그때 명옥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곯던 동생 명수도 안됐지만,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힘찬이는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1. 힘찬이와 명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정리해보세요.

| | 공통점 | 차이점 |
|-----|-----|-----|
| 힘찬이 | | |
| 명수 | | |

2. 명옥이가 힘찬이를 보면 동생 명수 생각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아파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써 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명옥이의 학교생활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명옥아, 친구가 없어 외롭네?”

명옥이는 명옥이를 끌어당겨 꼭 안아 주었습니다. 명옥이는 명숙이 언니 품에 안겨 잠시 가만히 있습니다.

“친구는 사귀면 되는 거야. 남조선 아이들도 별거 아니야. 언니는 벌써 친구를 두 명이나 사귄걸.”

“정말?” 명옥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명숙이 언니는 학교가 재미있나 봅니다.

“그럼, 내가 북조선에서 왔다고 하니까 남조선 아이들이 막 궁금한 거 묻더라. 그래서 북조선 얘기해주면서 친해지지 않았네.” 명숙이 언니가 싱그레 웃었습니다.

“근데 언니, 난 아직 말 한 마디 못했어.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

(나) 명옥이는 수학 익힘책을 끝내고 국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옥이는 수학은 잘하는데 다른 과목은 별로입니다. 수학 공부는 북한에서 했던 공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다. 그러나 국어, 영어, 사회는 많이 다릅니다. 또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에서 오랫동안 숨어 지내는 동안 학교를 원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명옥이는 글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1. 명옥이가 남한의 학교생활에서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가), (나)에서 각각 찾아 쓰세요.

| | |
|-----|--|
| (가) | |
| (나) | |

2. 명숙 언니가 명옥이에게 알려준 ‘남한 친구 사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3. 여러분도 명숙 언니처럼 나만의 ‘친구 사귀는 방법’을 명옥이께 알려주는 글을 써보세요.

| |
|--|
| |
| |
| |
| |



독서 후 책 속으로 ④ 배려하는 말하기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야, 이거 써.”
뜻밖에도 힘찬이가 샤프 연필을 쓱 내밀었습니다. 명옥이가 놀라서 힘찬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넌 샤프도 없니? 하긴 북한에는 이런 거 없었을 거야.”
힘찬이의 말에 명옥이는 그만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나) “야야, 그만 굼어. 피 나잖아.” 한일이가 힘찬이 등허리를 툅 때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힘찬이가 입고 있는 하얀 먼 셔츠에 핏방울에 빨강게 묻어 있었습니다.
㉡“너만 보면 징그러워 죽겠어.” 한일이의 말에 힘찬이는 부아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 “북한 사람들은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하하하, 쌀밥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데, 쌀밥 먹는 게 소원이라니 웃긴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힘찬이도 아이들을 따라 히죽이죽 웃다가 바짝 굳어진 명옥이의 얼굴을 보자, 웃음을 멈췄습니다.
명옥이는 어떻게 통일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한 시간이 마치 십 년이나 되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1. (가)~(다)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찾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 | 상처 받은 사람 | 상처를 받은 이유 |
|-----|----------|-----------|
| (가) | | |
| (나) | | |
| (다) | | |

2. 밑줄 친 ㉠, ㉡, ㉢의 말을 각각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은 말로 바꾸어 써보세요.

| | |
|---|--|
| ㉠ | |
| ㉡ | |
| ㉢ | |



독서 후 토론&논술 ① 허락 없이 편지를 공개해도 될까?

※ 다음 글을 읽고, ‘영양사 선생님은 명옥이의 허락 없이 편지를 공개해도 될까?’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공개해도 된다’, ‘공개하면 안 된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가) “며칠 전에 선생님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읽어 줄 테니 식사하기 전에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윽고 선생님은 짝막한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내 친구 중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고기나 햄, 달걀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먹을 반찬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선생님, 그 아이를 위해서 식물성 반찬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아이가 힘들어 할 때마다 저는 너무 너무 슬퍼요,

(나) 명옥이는 흘깃 힘찬이를 훑쳐보았습니다. 힘찬이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보였습니다.
“힘찬아, 미안해. 잘못했어. 선생님이 편지를 읽어줄 줄은 나도 몰랐어.”
명옥이는 다른 아이들이 들을세라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헛, 잘났어, 김명옥. 아주 광고를 해라, 해. 강힘찬이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다고 네거리에서 크게 외치지 그랬냐?”

주제: 영양사 선생님은 명옥이의 허락 없이 편지를 공개해도 될까?

• 나의 선택: 영양사 선생님이 명옥이의 허락 없이 편지를 (공개해도 된다 /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독서 후 토론&논술 ② 명옥이와 친해지는 법

※ 아래 글에서 명옥이의 친구들은 명옥이와 친구가 되어 북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반 친구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명옥이는 친구들과 대화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 친구들에게 명옥이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하는 쪽지를 써보세요.

아이들은 명옥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북한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그 무서운 북한을 탈출했는지 물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불우 이웃을 돕듯 명옥이에게 연필이나 공책 같은 학용품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명옥이는 그런 선물을 받아도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시큰둥한 얼굴을 했습니다.

“명옥아,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어 굶는다면? 넌 뭘 먹고 살았니?”

“북한 공산당이 너네 식구를 어떻게 못살게 굴었니?”

그러나 명옥이는 아무리 말을 걸어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꾸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눈길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웃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이들은 곧 그런 명옥이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헛, 명옥이는 장애아인가 봐.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독서 후 창의융합_ 탈북민과 함께해요

1. 명옥이네 가족은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탈북민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남한 사람들이 돕고 배려해야 할 점을 생각하여 빈칸에 써보세요.

| | | |
|---|---|--|
| ① 탈북민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조심해요. | → | |
| ② 통일 수업은 이렇게 바꿔요. | → | |
| ③ 탈북민이 남한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런 것을 도와줘요. | → | |

2. 명옥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피양랭면집>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광고문을 만들어보세요.

[예시답안과 가이드]

■ 독서 전

1. (예시답안)

| |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
|-----|--|
| (1) | 제목 글자에서 명옥이 이름에 꽃이 그려진 것은 어떤 의미일까? |
| (2) | 두 아이 모두 표정이 어두운 것으로 보아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

2. (예시답안)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온 것 같다.
3. (예시답안) 남한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 남한 어린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등

■ 독서 중

(예시답안)

| 페이지 | 인상 깊은 내용 |
|--------|--|
| 34~36쪽 | 명옥이네 가족이 북한에서 탈출하는 도중 동생 명수가 죽게 되는 장면 |
| 51~52쪽 | 힘찬이는 고기 육수 랭면을 먹고 싶었지만 아토피 때문에 동치미 랭면을 먹어야 했던 장면 |
| 67~69쪽 |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힘찬이를 보면서 죽은 동생 명수를 떠올리며 명옥이가 눈물을 참는 장면 |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①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예시답안)

- ① 인정 많고 마음이 따뜻하다
② 당차고 용감하다.
③ 용감하고 지혜롭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 ④ 배려심이 많고 생각이 깊다.
⑤ 자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 책 속으로 ② 힘찬이와 명수

1. (예시답안)

| | 공통점 | 차이점 |
|-----|------------------------|-----------------------------|
| 힘찬이 |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 한다. |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 한다. |
| 명수 | | 몸이 약해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다. |

2. (예시답안) 음식을 잘못 먹으면 두드러기가 돌아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힘찬이의 모습이 명수와 닮아서
3. (예시답안) 장염에 걸려서 삼일 동안 죽만 먹은 적이 있다. 그때 매콤한 떡볶이나 피자 등의 간식 냄새만 맡아도 너무 먹고 싶었고 그런 음식을 마음껏 먹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 책 속으로 ③ 명옥이의 학교생활

1. (예시답안)

- (가): 친구를 사귀는 일 / (나) 북한과는 다른 내용의 교과 공부를 하는 것
2. (예시답안)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북조선 이야기를 해준다.
3. (예시답안) 명숙아, 내가 알려 줄 친구 사귀기 비법은 공통의 관심사 가지기야.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좋아하는 가수, 배우, 운동 선수에 대한 팬 활동을 함께 하다 보면 금방 친해지거든!

◎ 책 속으로 ④ 배려하는 말하기

1. (예시답안)

[예시답안과 가이드]

| | 상처 받은 사람 | 상처를 받은 이유 |
|-----|----------|----------------------------------|
| (가) | 명옥이 | 힘찬이가 북한에서 온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 |
| (나) | 힘찬이 | 한일이가 아토피로 상처 난 힘찬이 피부를 징그럽다고 말해서 |
| (다) | 명옥이 | 반 아이들이 북한 사람들의 가난한 처지를 비웃어서 |

2. (예시답안)
- ㉠ → 연필보다는 샤프가 편할 거야. 샤프를 한 번 써 봐.
- ㉡ → 상처 난 피부에 피가 나고 있잖아. 피부가 더 상할 테니 그만 긁어.
- ㉢ → 북한은 아직 쌀이 많이 부족한가 봐. 남한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네.

◎ 토론&논술 ① 허락 없이 편지를 공개해도 될까?

(예시답안1)

영양사 선생님이 명옥이의 허락 없이 편지를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명옥이가 보낸 편지를 공개한 것은 모든 아이들이 힘찬이와 같이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친구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명옥이네 학년 전체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므로 공개하는 것은 괜찮다.

(예시답안2)

영양사 선생님이 명옥이의 허락 없이 편지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명옥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담은 편지를 선생님께만 보낸 것은 선생님 혼자만 읽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구를 위하는 좋은 내용이라 해도, 공개를 하려면 편지를 보낸 명옥이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

◎ 토론&논술 ② 명옥이와 친해지는 법

(예시답안)

[예시답안과 가이드]

애들아, 명옥이와 친해지고 싶은 너희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하는 행동이나 말은 명옥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학용품을 주는 것은 호의였겠지만, 명옥이 입장에서는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동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북한 생활에 대해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면 명옥이는 말하기 곤란할 수도 있을 테고. 명옥이를 북한에서 온 신기한 아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학 온 친구로만 대해 주면 어떨까? 우리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학교 안내를 해주거나 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면 더 빨리 명옥이와 친해질 수 있을 거야!

◎ 창의융합_ 탈북민과 함께해요

1. (예시답안)

- ①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는 듯이 말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② 북한의 나쁜 점만 이야기하거나, 북한이 남한보다 가난하다는 것만 다루지 말고 북한과 남한의 사회와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③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꾸준히 교육해준다.

2. (가이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고, 순수 메밀로만 만든 냉면을 파는 것이 특징인 피양랭면집의 특징을 잘 살려 광고문을 쓰도록 합니다. 동치미 국물 랭면, 고기 육수 랭면, 메밀 부침개 등의 메뉴를 소개하는 것도 좋아요.

답안 생략.